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 심사총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30(수) / 2차 심의 : 2016. 4. 8(금)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에는 총 34개의 단체가 응모했다. 1차 서류 심의, 2차 프레젠테이션심의로 2단계 심의를 진행하였다. 심의기준은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30%), 공간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전년도 평가결과(20%)에 두었다. 1차 서류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6명의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사무처에서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이 중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궁극하거나, 공간운영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작년도 평가결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발전적인 공간운영방향을 제시하였는지, 잠재력이 높은 기획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심의위원들은 입지조건이 좋은 미술관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전시와 관객개발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작은 군소/신생 공간들에게는 공간 유지와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부분의 공간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다소 관성적인 모습을 보이는 공간이 있어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다.

향후에는 각 공간들의 분명한 성격 규정, 공간별 지속적 운영의 해법, 공간 운영에 대한 지원금 이외의 활성화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고 고민되어야 할 듯하다.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 심사총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심의 : 2016. 3.30(수) / 2차 심의 : 2016. 4. 8(금)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에는 총 29개의 개인 및 단체가 응모했다.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심사로 2단계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에 두었다.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6명의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사무처에서 받아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차 심의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토론하였고, 이 중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2차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2차 심의에서 최종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하였다.

2016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비평지원 사업은 일반적인 학술 및 연구지원 사업보다는 비평적 관점이 선명한 사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명한 비평적 관점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개인비평집이나 앤솔로지류의 비평집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신청자(단체)들이 지원의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단순한 학술대회 성격의 지원도 제외하였다. 반대로 비평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가 약하더라도 매체 생산을 통한 담론 생산에 기여할 사업들은 눈에 띄었다.

그 결과, 개인일 경우 비평적 성과가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사업, 학회의 경우에도 비평적 시각이 담긴 사업, 비평활동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린 사업, 비평의 참신성과 내용의 깊이를 위주로 국내 비평에 발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였다.

평년에 비해 순수비평에 집중하거나 의욕적인 비평연구 활동이 다소 미흡하던 점은 아쉽다. 비평적 시각에 무게를 둔 사업,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보다 하나의 사업에 집중된 기획이 필요하다. “비평 부분”에 대한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여, 비평지원 사업에 맞는 비평적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신청사업의 지원이 더 많았으면 한다.

201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심의위원 일동